Robert Vannoy, Exodus to Exile, 강의 9B

사사기, 사무엘상하의 왕권

사사기 신학

왕권에 대한 사사기의 견해

쉬는 시간 직전에 언급했듯이 사사기 신학에 대한 유인물의 다른 섹션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835쪽에 세 번째 문단까지 있습니다. 그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질문은 사사기 자체에서 발견되는 이야기와 논평에 반영된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자료를 조합한 사람의 생각에 왕권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이 시작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왕권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즉, 왕권이 올 때 더 많은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원하는대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미에 나오는 이 강력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의 부재는 사사 시대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시켰고, 따라서 왕권이 바람직함을 시사합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이 책이 전체적으로 반군주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왕권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이 견해의 근거는 한편으로는 기드온이 왕권 제안을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왕권을 긍정적으로 확언한 사사기 8:22과 8:23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장에 있는 아비멜렉과 함께 왕권에 대한 비참한 이야기에 호소하십시오." 내가 아비멜렉의 왕권이 세겜의 멸망으로 끝났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일부 해석자들은 에필로그의 17-21장에 나오는 왕권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과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발견하는 왕권은 너무 근본적이어서 상충되는 태도는 본문의 다른 층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긴장과 근본적인 근원에 대한 그런 종류의 분석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해결책이 부족하여 다른 해석가들은 왕이 없고 모든 사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진술이 어떻게든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로 보여야 하며 왕권에 대한 책의 전반적인 부정적인 전망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논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단락은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를 제공합니다. "이 논쟁의 대부분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과 9장은 근본적으로 왕권을 반대하지 않으며, 17-21장은 인간의 왕권 자체가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암시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잘못된 대조가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삿 8:22-23은 인간의 왕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야훼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확증합니다. 문맥상, 기드온이 자신이 한 방식으로 반응해야 했던 것은 야훼의 왕권을 거부한 것과 기드온에게 인간 왕권을 제안한 것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다스리소서'(삿 8:22).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평가는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너희 손에 붙이신다'라고 말하는 전투 전에 기드온의 행동 촉구와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였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7:2)" [그것이 내게 문제입니다.] " 이런 맥락에서 기드온은 제안을 거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동시에 Herbrant가 지적한 것처럼 그의 백성에 대한 야훼의 지속적인 통치를 불확실한 용어로 확언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니 이 이스라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권은 이 분야에서 야훼의 역할을 찬탈할 때마다 잘못된 것입니다." 즉, Kingship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에 따라*; 야훼의 통치를 대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이 세겜의 임명된

통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왕권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그 자체로* 오히려 그것이 범죄와 불의(아비멜렉의 "통치"가 무엇인지)에 근거하고 그 당시 가나안 도시 국가에서 발견되는 왕권의 유형을 모델로 할 때 왕권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사기가 사사와 왕의 역할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시하는 관점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견해는 어느 제도도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왕권이 올바로 생각되고 행사되면 죄 많은 백성을 언약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가시적 주권에 중앙 정부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사사 시대의 혼돈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은 또한 인간 제도의 결점과 실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통합된 왕권, 즉 그의 백성에 대한 야훼의 궁극적인 주권을 계속해서 확증하는 왕권의 개념은 사사기 어디에도 책망되지 않는다." 왕권이 실제로 확립되는 사무엘에 들어갈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왕권은 언약에 의해 확립되고 여호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궁극적인 주권과 왕권을 계속 인정합니다. "구약은 사사기와 왕기의 제도를 신성한 구속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는 데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오실 재판관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은 바로 재판관들의 실패입니다. 디모데후서 4:8은 주님을 최종적으로 의로운 재판관, 궁극적인 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위대한 왕이 오실 필요성을 미리 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실패와 같습니다(요 1:1: 49, 요한계시록 19:16). 이 시점에서의 언급은 왕권이 실제로 확립되는 사무엘상 8-12장으로 들어갈 때 다시 나타날 동일한 문제에 대해 우리를 설정합니다.

룻

우리 성경에서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삽입된 룻기에 대한 당신의

개요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Ruth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룻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혼돈과 종교적·도덕적 퇴보가 심했던 이 어두운 사사 시대의 상황을 다른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당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 엘리멜렉이 죽은 모압으로 갔다. 그녀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는데, 하나는 오르바이고 다른 하나는 룻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두 아들이 죽고 그녀는 아들과 남편 없이 남게 됩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며느리인 룻도 그녀와 함께 갑니다.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당신이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책의 끝 부분입니다. 4장 17절을 보면 "그곳에 사는 여인들이 말하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왕은 오벳의 아버지, 오벳의 아버지 이새, 이새의 아버지 다윗."

따라서 룻기의 끝 부분에는 다윗의 혈통을 추적하는 족보가 있고 그 혈통에서 룻이 그 계보의 맨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올 여자의 씨인 구속사의 흐름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도달할 때의 주요 연결 고리는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삽입되어 보아스와 룻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약속된 씨의 가계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V. 1 & 2 사무엘

A. 일반 의견

1. 이름

계속해서 사무엘상하로 갑시다. 이것은 로마 숫자 V, 1 및 2 사무엘입니다. A.는 “일반 의견”입니다. 1.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이 책의 첫 부분에서 두드러진 인물인 사무엘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 등 총 55장으로 구성된 긴 책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보내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저는 종종 사무엘이 사무엘상하의 저자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25장 1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무엘이 사라지기 전에 책에 너무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의 생애 대부분 동안 곁에 있지 않았고 사울보다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저자가 누구였든(익명 저자이므로 누군지 알 수 없음) 사무엘, 나단, 갓의 자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상 29장 29절을 보면 사무엘, 나단, 갓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당신은 연대기에서 읽었습니다.다윗 왕의 사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니라.” 그래서 나단과 갓은 여러 지점에서 다윗을 훈계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록을 보관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연대기 작가가 글을 쓰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언급합니다.

사무엘은 원래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의 단일 단위였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칠십인역의 번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적절한 구분 장소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고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여기서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

제목은 다양하여 「칠십인역」에서는 "왕국의 1권과 2권"으로 지정했습니다. Vulgate에 도착하면 Kings 1과 2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하, 열왕기하, 열왕기, 그리고 열왕기하 4: 왜냐하면 우리가 벌게이트의 전통에서 사무엘상하라고 부르는 것은 열왕기상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그 제목을 따르는 논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도서관에 가서 "열왕기상하"를 읽으면 그것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게 뭐에요? 사무엘을 열왕기상하로 불렀기 때문에 열왕기상하를 열왕기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 이름에 대한 주석입니다.

2.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한 간략한 개관: 왕권과 언약

2.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한 간략한 조사"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 자신은 사사 중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책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끝납니다. 사무엘상하에서는 다윗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 2장에서 솔로몬의 통치로 전환되는 열왕기상 1, 2장에서 다윗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약 130년의 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당시의 상세한 정치사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이 책의 세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왕권과 언약이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권과 언약을 주제로 삼을 때

발견되는 것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권은 언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8장에서 사무엘이 "우리는 왕이 나가서 우리를 인도하고 아마도 우리를 승리하게 할 왕을 원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권과 인간 왕을 원하는 이유는 야훼의 왕권을 부인하는 데서 나온다. 그 요청은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사무엘이 제정한 왕권은 언약과 일치했다. 8-12절에서 그 부분으로 더 들어가면 야훼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하는 언약 갱신 의식의 맥락에서 사울이 궁극적으로 취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운 왕권은 언약과 일치합니다.

책 속으로 더 들어가면 사울이 행한 왕권이 언약적 이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책임을 물었을 때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은 사울을 왕으로 배척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어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실행한 왕권이 불완전하지만 언약적 왕의 이상을 참되게 표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실패가 있었지만 나단이 책임을 물었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그와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구조

이것이 사무엘상하를 통한 이 이야기 흐름의 통일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유인물의 2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책 전체는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책에 나오는 세 가지 기본 인물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2장에서 주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4-6장에는

사무엘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장들에는 매우 눈에 띄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사무엘상 13-31장에서 초점은 사울에 있습니다. 그는 12장에서 취임하고 13장에서 그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13장부터 끝까지 사울의 삶의 하향 나선형을 보게 됩니다. 더 나빠지고 결국 자살로 끝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사무엘하 24장 전체인 다윗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인물에서 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부분들이 각각 17, 34, 45페이지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다소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공간의 양은 이 개개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David 's는 지금까지 가장 큰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그 자체로 다윗의 통치를 강조하려는 저자의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 사무엘상하에서 구속사의 중요한 진전

1.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잠정적 성취를 기록하다

약속의 땅에 관하여

B. 당신의 유인물과 당신의 개요는: "사무엘상하에서 구속사의 중요한 진보"입니다. 나는 사무엘상하에서 구속사의 진전에 대해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여기에 세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약속의 땅의 범위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잠정적 성취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의 중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18-21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애굽 강에서부터 북동쪽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은 창세기 17:8, 민수기 34:1-12, 신명기 1:7, 11:24, 여호수아 1:4, 시편 105편에서

확인됩니다. 즉, 그 약속은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 수많은 참조 성구 중 신명기 1장 7절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진을 떠나 아모리인의 산간 지방으로 진격하라. 아라바와 산과 서쪽 구릉과 네겝과 해변을 따라 가나안 땅과 레바논에 이르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러 이웃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유프라테스에 대한 또 다른 언급에 유의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4절은 "너희의 영토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요 큰 강 유브라데 곧 헷 족속의 온 땅에서부터 서쪽 대해까지"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약속의 땅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아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계는 모세, 여호수아 및 다른 언급에 의해 반복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에서 더 큽니다.

이제 저는 그 약속이 처음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성취되었지만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파의 경계를 얻는 사사기 1장에서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까지의 국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의 실현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내부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항하여, 외부적으로는 그 경계까지 확장한 다윗 치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의 정복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 가에서 세력을 회복하러 갈 때에 그와 싸웠더라. 다윗은 그의 병거 천 대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1절에서 다윗의 왕국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양도할 때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국경처럼." "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 지도에서 팁사는 여기 유프라테스 강 위에 있습니다. 그곳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정복 목록과 함께 읽을 때 사무엘하 8장에 포함되는 것이 다소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신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즉

,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그가 말한 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까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시대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쳐부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거의 압도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있는 큰 나라들—바벨론, 앗수르, 헷, 엘람—은 그들의 역사에서 약한 시기에 있었고, 다윗 왕국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수 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정도로 자랐습니다.

점진적인 구속사에 관한 한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약속의 땅을 확장하는 것에 관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잠정적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잠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의 미래 성취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왕권

사무엘하로 돌아가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이스라엘의 왕권 확립과 왕권과 기름부음의 연관성에 대한 기록이 있는 역사의 진전을 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왕권은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왕권에 기름 부음이 연관되어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사무엘서에서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왕과 동의어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와 “메시아”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고 음역한 것임을 깨달을 때 알 수 있습니다.*메시야*"기름부음을 받은"을 의미합니다.*크리스토스* 신약성서와 70인역 모두에서 헬라어로 번역된*메시아*, "기름 부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용어는 우리의 영어 번역에서 "그리스도"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기름부음을 받은”이라는 용어에는

많은 흥미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9장 16절과 사울의 경우 10장 1절, 다윗의 경우 16장 13절에 나온다. 왕에 대한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는 내가 사무엘상하에서 나열한 여러 참조 문헌에 나타납니다.

이제 왕권은 구속사 과정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초기 성경 진술에는 왕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통치자인 실로에서 야곱의 예언에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표현됩니다. 야곱이 그의 모든 아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줄 때 그는 49:10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의 순종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왕권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그 예언에서 예상됩니다.

왕권은 민수기 24:7-17에 있는 발람의 신탁에서 더욱 발전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나는 당신에게 그것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4-20절을 보십시오. 신명기의 그 부분은 종종 "왕의 법"이라고 불리며, 여기서 모세는 왕권이 확립될 때 이스라엘 왕의 행동을 지배할 특정한 원칙을 미리 제시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14-20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위에 왕을 세우실 때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왕권이 예상되며, 저는 왕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거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의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왕을 원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왕권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나는 이것이 언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이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실패로 판명되었다는 것입니다.

ㅏ. 다윗 언약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고 그의 왕조가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11-16과 23:1-5입니다. 다음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이 전체 책의 핵심입니다. 나는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을 봅시다. 악인이 다시는 그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처음부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때부터 그러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너희를 모든 대적에게서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섹션에는 말장난이 있습니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고 나단은 "가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서 화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나를 위해 집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왕조의 의미에서 당신을 위해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원 대 왕조의 의미에서 "집"이라는 단어에 대한 놀이를 얻습니다.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를 이어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악을 행하면 내가 사람 채찍으로, 사람이 채찍질하는 채찍으로 그를 벌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도 내 사랑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왕국은 내 앞에서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네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비. 본문 간 다윗 언약

그래서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 다윗과 맺은 언약은 시편 89편에서도 언급됩니다. 이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봅시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는 용어는 사무엘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편 89:3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네 혈통을 영원히 견고케 하고 네 왕위를 대대에 견고히 하리라' 하였나니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약속 곧 다윗의 언약이다. 시편 89편 20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내가 나의 신성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28절, "내가 그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의 혈통을 영원히 견고케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있는 한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범하며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라." 33절, "그러나 나의 사랑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계약을 어기지 않고 내 입술이 말한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단번에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하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히 이어지고 그의 왕위는 해 같이 내 앞에서 계속되리로다 그것은 궁창의 충실한 증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에 대해 강력하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3페이지 하단에 언급한 것처럼 전체 책의 핵심이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계열은 이제 좁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여자의 씨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 다윗은 장차 오실 위대한 메시아 왕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시편 89편이 묘사한 대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길가에 앉아 있는 두 소경이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빛나는 새벽별이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업적이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상화되거나 받침대 위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의 약점은 분명합니다. 책의 저자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3:14과 16:7에 사용된 문구이며 사도행전 13:22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의도하신 대로 통치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참된 언약 왕의 이상을 완전하게 또는 완전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의 권능 아래 그의 온 마음의 능력을 다해 통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사무엘하 8장 13절에 "모든 백성을 위하여 정의와 의를 행한" 왕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높은 칭찬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경건한 개인이 있더라도 어떤 인간 왕도 높은 이상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윗이 그 뒤를 이은 왕들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종종 "그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또는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주 후자는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였습니다. 왕들이 언약적 이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좌를 차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미래의 메시아적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미래의 어느

때에 평범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왕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신성한 왕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7:14,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보좌를 차지한 아하스의 실패라는 맥락에서 주어진 표징입니다. 아하스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고,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찾고자 하지 않고 대신 앗수르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안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합당한 대표자가 아하스를 대신할 것이며 그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부를 것입니다. 이사야 9:6,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요 그 이름은 신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느니라. 그의 평강의 더함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 그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좌를 차지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예레미야 23:5을 보십시오. 이 미래의 메시야 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서 공평하고 옳다'' 다윗의 통치는 이렇게 특징지어졌다. "그의 시대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분은 장차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신성한 왕이십니다.

사무엘상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권 확립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며 이것은 장차 오실 더 큰 것, 곧 온 땅의 왕인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래서 왕권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구약과 신약의 종말론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무엘 상하에서 그 뿌리를 찾습니다. 왕권이 확립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기름부음의 개념이 처음으로 구체화되고 사무엘상하 이후의 구속사의 진행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사실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권 확립과 기름부음과 왕권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 사무엘상 1, 2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하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 시대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사무엘하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의 수도로 삼은 여부스 사람의 도시 시온을 정복한 것에 대해 읽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6장에 있습니다. 6장에서 당신은 그가 법궤를 그 도시로 가져와 그곳을 국가의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고 그가 야훼를 그 땅의 최고 통치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보좌로 묘사됩니다. 그룹들 사이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가 언약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언약궤를 그 성으로 옮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그것은 "나는 당신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야훼가 주권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궤의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으며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종말론적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목적에서 계속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무엘상하에서 일어난 또 다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신문을 집어들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사무엘상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장소를 사용하셨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 사무엘의 생애

5. 왕권의 확립과 언약의 연속성

나는 여기서 C., "사무엘의 생애"에서 멈추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무엘의 생애에 대해 몇 가지 논평하고 싶지만, 다음 주에는 5번 C. "왕권 확립과 언약 연속성" 및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신권을 재편하고 왕권을 신정 구조로 통합하는 문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약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이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하에 대한 몇 가지 논평으로 시간을 끝낼 것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세션이므로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당시에는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아이디어는 특정 예언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또 다른 구약 예언의 인물인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권능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분류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라 호킨스가 각본을 맡은 작품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Katie Ells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의 재연설